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바흐’와 ‘테오도르 루즈벨트’처럼

바흐의 미태수난곡, 북음서를 바탕으로 그리스의 고통을 다룬 종교 음악이다. 1729년 4월 15일 초연되었다. 그 후 까마득히 잊혀졌다. 그러다가 1829년 펠릭스 멘델스존에 의해 발굴되고 초연되었다. 멘델스존은 독일의 초기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다. 피아니스트이자 오르가니스트다. 지휘자이기도 했다. 바흐나 멘델스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음악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중·고교 시절 교과서에서 많이 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흐가 처음부터 대음악가로 추앙받은 것은 아니다. 대음악가 반열에 올라선 것은 사후인 19세기다. 그야말로 100여년이 지난 뒤다. 때문에 생전에는 큰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빼졌을 뿐이다. 장인의 정신으로

알아주든 않든 간에 이게 진정한 전문가 정신이 아닐까. 어찌 보면 역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0여 년 뒤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대중의 가슴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감동을 주고 있다. 요즘의 출몰거리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복장 터져 죽을 일일지도 모르지만 작곡의 세태는 참으로 가관이다. 쪼그만 재능만 있어도 난리다. 안달이다. 타인이 보기에 그저 쫄대기일 뿐인데도, 감으로 말하면 겨우 6월 초순경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때는 뽀은맛도 제대로 들지 않을 시기다. 그런데도 매우 달다. 그야말로 꿀맛이다. 예술계 쪽만 이러는 것은 아니다. 정치계도 교육계도, 기타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즘 정치인들을 봐보라. 참으로 가관이다. 철면피다. 자신들의 말을 빌리자면 사이코패스다. 날마다 독살을 난무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이름을 너무나 많이 도용하는 것 같다. 자신의 하찮은 것은 침소봉대해도 타인의 재능은 아무리 높아도 물어버린다. 험뜯고 비난하기까지 한다. 갑남을녀도 마찬가지다. 주변에서 가장 미움 받는 부류들은 정해져 있다. 제멋대로인 사람, 돈 버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사람, 화제가 직장 이야기밖에 없는 사람, 수다스러운 사람 등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남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도 인지하지 못한다. 때문에 인정하지도 않는다. 철면피 스타일이다. 반면에 환영받는

사람들은 어떤 쪽인가.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인생에 적극적인 사람 등이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잘 내세우지 않는다. 험뜯지도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지도 않는다.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일에 몰두한다.

이런 부류의 대부분은 자신이 잘못된 것은 스스로 인정한다. 그래서 고쳐나간다. 때문에 발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좋아한다. “위대한 사람은 평론가가 아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신수가 될 어찌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지적하는 그들이 아니다. 영광은 먼지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자의 몫이다. 앞서면 이길 것이요, 뒤지면 패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하고 패배했다 해도 그는 담대하고 위대하게 진 것이다. 경기장 안에서 담대하게 뛰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 미국의 26번째 대통령이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한 말이다.

심장이 좋지 않아서 대학시절에 의사의 강력한 권고도 받았다. 조심조심 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았다. 곧 사냥을 즐기면서도 심신한 곰, 병약한 곰 등을 가려서 했다. 인간적인 면이다. 바흐처럼 소신적 충실하게 이 행했던 것이다. 주어진 사명감을.

社說

체육 꿈나무 인권 신장 시급

전국소년체전에서 뛰는 초등·중학교 체육 꿈나무들이 일상적 폭언과 욕설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격정이 크다.

코치들은 성적을 내기 위해 선수들을 폭력한다는 명목으로 험한 말을 수시로 내뱉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대를 걸어본다.

인권위는 최근 실시한 제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 산하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벌였으며 대상은 전북 익산, 전주 등 15개 체육관에서 진행된 12개 종목(축구, 야구, 핸드볼, 유도 등)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은 일상적인 폭언에 시달렸다. 심지어 경기 중인 한 선수가 다리 부상 신호를 보내자 화를 내며 경기에 계속 뛰라고 지시한 코치도 있었다.

이런 행위는 일반 관중이나 학부모 등이 지켜보는 중에도 공공연하게 이뤄졌다고 충격이다.

직접적인 구타나 폭행은 아니었지만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선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숙박 시설로 모텔을 이용했다. 욕실에 문이 없어 욕조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아동이 장거 투숙하기에는 부적절한 숙박 시설도 있었다. 15개 체육관 중 5개 시설에만 탈의시설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1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선수들은 복도나 관중석 등 노출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체육관에는 탈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15개 체육관 중 5개 시설에만 탈의시설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1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선수들은 복도나 관중석 등 노출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전국체전이 아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평상시 가슴압박 속달로 생명의 기적을 창조하자

심정지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신고자 또는 목격자가 당황하여 그 어떠한 처지도 하지 않은 채, 소생술을 좌우하는 황금시간을 놓쳐 버리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행되어야 할 목격자의 응급처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격자의 응급처치라 함은 심정지환자 발견 시 즉시 시행되어야 할 심폐소생술을 말하는데,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과 폐에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심폐소생술지침서에 따르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소생률의 차이는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입증하는 셈이다. 흔히들 심폐소생술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았어도 금방 잊어버리기 쉬우며, 타인에게 선풐 시도하기 꺼려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무안 소방서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소방서 홈페이지에 심폐소생술 및 각 상황별 응급처치법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응급처치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4-5분이 경과하면 뇌

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되고,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각한 뇌손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내 가족 또는 주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등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 심폐소생술에 대해 숙지하도록 해야겠다.

현재 심폐소생술 지침서는 가슴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정지 환자(성인기준)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함께 5cm정도 깊이와 분당 100-120회 정도 속도의 깊고 빠른 가슴압박(30회)-기도유지(머리 젖히고 턱들기)-인공호흡(2회)을 권장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가슴압박소생술인데,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

박만을 하는 소생술로 일반인에게 어렵게만 인식되어 오던 심폐소생술을 단순화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심정지환자 발생 시 가슴 압박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폐소생술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등의 상황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심정지환자 발견 시에는 119에 신속히 신고하여 환자상태 등을 알리고, 구급대가 도착 할 때까지 119상황실에서 안내하는 응급처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한다.

목격자의 신속한 신고와 신속한 심폐소생술, 그리고 119구급대원의 신속한 제세동기 사용과 효과적인 병원치료가 이어지는 생존 사슬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손길임을 기억해야겠다.

신기석 / 광산소방서 진압팀장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既集墳典

既集墳典

▷ 뜻: 이미 (墳)과 전(典)을 모았으니, 삼황(三皇)의 글은 삼분(三墳)이요, 오제(五帝)의 글은 오전(五典)임.

湖南新聞

등록번호 광주시 0021 (영간)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편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